

도내 불법농약 적발건수 전국 최고

이완영 의원 국감자료 2년6개월간 385건 중 63건... 단속 전담인원 11명 불과·농과라치 효과 없어

전북지역의 불법농약 적발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이 23일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2014~2016년6월) 농촌진흥청의 불법농약 적발건수가 385건 가운데 전북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무허가로 들여왔기 때문에 설명서도 읽을 수 없는 외국 밀수 농약과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가격 폭리를 취한 농약이 압압리에 거러두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불법농약 적발 종류는 밀수입 등 부정농약(2건)과 약효보증기간 초과 농약(8건), 가격표시 등 법규 위반 농약(53건)으로 다양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에 이어 전남 60건, 충남 57건, 경북 53건의 순이다.

이처럼 불법농약이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농과라치' 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농약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농약제 합동 현장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며 특별점검도 수시로 진행한다.

이 때 전국에 투입되는 농촌진흥청 단속원은 농자재산업과 유통관리팀 3명의 전담인원을 포함해 11명에 불과하다.

이들을 보조하는 단속인력 역시 지자체 농자재 담당자와 민간 농자재명예지도원(145명)이 대부분이다.



민주화의 산증인, 영면의 길로

지난 23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성당에서 고(故) 조철현 비오 신부의 장례미사를 마친 유가족과 신도들이 관을 운구하고 있다. 지난 21일 선종한 조 신부는 5·18 당시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하다 신군부에 체포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렀으며 신체적 억압과 감시를 받았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또 5·18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소화자매원 이사장,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아리랑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통일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장려금 역할도 수행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농촌에 만연한 불법농약을 뿌리 뽑기에 턱없이 역부족"이라며 "점진에 함께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경우 소관 업무가 자주 바뀌는 탓에 농약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농진청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력난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농진청은 농약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포상금제도', 일명 '농과라치' 제도를 연간 1,000만원의 예산 하에 동일 신고자에게 연간 200만원 지급한도를 두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포상금 신고 건수는 2014년 9건, 2015년 4건, 2016년 상반기 2건 밖에 불과하며 포상금 지급은 2014년 8건 160만원, 2015년 4건 470만원, 2016년 0건 0원에 그쳐 연간 1,000만원의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규격 미달의 밀수농약에는 인체에 유해한 약제가 들어있을 수 있기에 농산물의 안전에 치명적"이라며 농진청에 대해 ▲불법 농약 적발인원 증원, ▲불법 유통조직 검거 위한 지자체,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농민 및 농약판매업소 대상 안전교육 강화, ▲신고포상금제 홍보 및 실효성 확보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등을 주문했다. /고민형 기자

군산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재인증

평생학습망 구축 등 좋은 평가

군산시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에 선정돼 지난 23일 서울 열타위에서 '2016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군산시는 200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10년, 2013년에 이어 올해까지 4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명실상부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HRD :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 제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여,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 관리하고 재직 중 다양한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재인증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군산시를 포함해 3개 지자체가 재인증서를 수여받아 총 12개 지자체가

인증 받은 상태다.

특히 군산시는 체계화된 인력관리를 비롯해 부서별 성과목표 부여 및 운영결과 공개,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주요시정 현장 배움 교육, 팀워크 활성화 교육, 조직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망 구축 등 큰 성과를 거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결국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연결되므로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행정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기관에는 3년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로고 사용과 Best HRD Club 참여자격 부여, Best HRD 워크숍 컨설팅(인적자원개발 전문교육 및 자문)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문정근 기자

도교육청 교직원 안전연수 이수율 낮아

송기석 의원 "34.2%로 전국평균 38.8%보다 낮아"

최근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전북교육청 교직원들의 안전연수 이수율이 낮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2015년 교직원 안전전문교육 이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교육청의 전체교직원 이수 대비 이수인원 비율은 34.2%에 그쳤다.

이는 전국 교직원(52만7,955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련직무연수 15시간을 이수한 비율 38.8%보다 낮은 수치로 전국 17시·시도교육청 중 14위를 차지하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역교육청별로 직무연수 이수인원 비율이 제일 낮은 곳은 경남교육청으로 18.2%였고 다음으로 서울교육청 23.2%, 강원교육청 25.7%, 전북교육청 34.2%의 순이다.

직무연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교육청이 84.2%를 차지했으며, 이어 광주교육청 65.4%, 전남교육청 62%, 울산교육청 55.9%, 대전교육청 54.4%의 순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마련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춰 개발한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학교에 보급·적용했다.

이후 교원에 대해 안전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교원에 대해 안전연수 완료율 제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실시한 안전연수는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교육부는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방학기간 연수 집중과 시도교육청 연수원의 물리적 여건상 매년 전체교원 대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원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 내진 설계가 안된 학교건물 안에서 교직원들이 재난 시 취해야 할 행동요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교육부는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학생과 교원에 대한 재난대비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석 의원은 "교직원에 대한 안전전문성을 높이고자 시작한 이 안전관련 전문교육이 재난시 학생의 안전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참여율이 낮은 교육청은 교직원의 안전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시내버스 파업... 전주시, 시민 불편 줄인다

민주노총, 내일부터 도중 회차 파업 예고... 노사 설득·비상수송대책 마련 등 나서

전주시가 민주노총 총파업 및 일부 시내버스 결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예고된 민주노총 전국 총파업으로 인해 일부 시내버스의 결행이 우려됨에 따라, 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 설득과 비상수송대책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내버스 운전원들은 파업 기간 중 운행 도중 회차 방식의 부분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총파업 이전까지 민주노총 측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시민불편만 야기시키는 시내버스 파업의 부담성을 알리고, 파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내버스 결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파업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하는 등 민약의 사태에 대비키로 했다.

특히 시는 82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소속 운전원을 우선 배

차·운행토록 해 거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노총의 파업 예고 사실을 알리고, 파업 기간 중에는 각종 주민센터 직원 등을 동원해 시내버스 승강장에 파업안내문을 부착해 파업단계별 상황을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대 자가용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하기, △가까운 목적지는 걷기 등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키

로 했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시내버스가 멈춰서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학생 등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만 고통을 받는다. 시민들을 불모로 한 시내버스 파업은 절대 안 된다"라며 "전주시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비상수송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임금협상 결렬(2015년 대비 임금 5%인상, 무사고수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7만원인상 등 요구) △체불임금 해결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9일 임금 2.8% 인상으로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뉴스

진안군 공고 제2016-663호

원반월~외기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계획 공고

- 사업개요
 - 사업 명 : 원반월~외기간 도로확·포장공사
 - 사업규모
 - 도로 : 폭 8.0m 연장 0.766km
 - 사업비 : 10억원
 - 사업기간 : 2016.01.01 ~ 2017.12
 - 사업시행자 : 진안군
- 편입토지 및 보상물건 내역
 - 토지 : 조서 '별첨'
 -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655-3외 일원
 - 지장물 : 별도첨부
 - ※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시/공고란 참조 및 열람 장소에 별도 비치
- 공람 및 이의신청
 - 공람기간 : 2016.09.26 ~ 2016.10.09(2주간)
 - 공람장소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063-430-2488), 진안읍사무소 (063-430-8207)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15년 10월 20일(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통보→보상협의→수용계결(협의 불성립 시)-공탁
 - 보상방법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2개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자 1인을 추천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타 :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 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공시 송달에 갈음하며 상세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도로관리담당(☎063-430-2488, FAX: 063-430-270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6일 진 안 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창간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우만족한 업무처리와 사회공헌으로 고객님과 익산시를 위한 헌신적 자세가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익산지사장 문 태 영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